

http://dx.doi.org/10.17703/JCCT.2019.5.4.259

JCCT 2019-11-31

국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특이적 효능감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A Systematic Review of the Studies on Specific Efficacy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in Korea

김민아*, 최소은**, 문지현***

Min-A Kim*, So-Eun Choi**, Ji Hyun Mo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특이적 효능감 관련 간호연구를 분석하여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198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간호’ AND ‘효능감’ 등을 주제로 검색된 432편 중 특이적 자기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 관련 국내 간호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하였다. 효능감은 간호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속성으로 여겨져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특이적 효능감 관련 간호연구는 2014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간호 실무에서 특이적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간호대학에서 교과 및 비교과과정을 운영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특이적 효능감, 간호사, 간호학생, 간호, 문헌고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rends in research on Specific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nd nurses in Korea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with 432 papers published between 1985 and 2018 from five electronic databases and other sources using such key words as ‘Efficacy’, ‘nursing’, ‘nursing students,’ ‘nurses,’ etc. The research design of 72 nursing researches on the specific efficacy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analyzed in this study was 96% in 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studies accounted for 23 (30.7%). Development of effective and highly diverse teaching methods is recommended to increase specific efficacy. Supporting systems and funding are required to help activate research of nurses.

Key words : Specific Efficacy, Nurses, Students, Nursing, Systematic Review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과업 수행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믿음 또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Bandura[1]는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특정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은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한 Bandura[2]는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 정희원,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정희원,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정희원,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19년 9월 22일, 수정완료일: 2019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28일

Received: September 22, 2019 / Revised: October 14 2019

Accepted: October 28, 2019

*Corresponding Author: moonjh86@mokpo.ac.kr

Dept. of Nursing , Mokpo National University, Korea

(general self-efficacy)과 특이적 자기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 활동영역에서 높은 효능감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영역에서 반드시 높은 효능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효능감 측정은 기능의 영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념으로서의 효능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효능감이 측정되어야 할 필요를 시사하고 있다.

구미옥 등[3]은 인간 건강행위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간호학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속성을 밝히고자 Walker & Avant 개념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자기효능의 개념 분석을 시도하였다. 개념분석결과 자기효능의 속성은 1)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지각, 2) 내적 힘, 3) 학습가능성, 4) 개별성, 5) 특정 성, 6) 일반화 가능성의 여섯 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는 Bandura의 정의인 '특정 상황에서 특정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부합되는 것으로 간호학에서 자기효능 개념을 연구할 때 Bandura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국내의 간호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은 간호라는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간호대상자 중심의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국외인 경우 컴퓨터상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효과를 간호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1,2,4-6]의 자기효능이론을 기틀로 간호학생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7] 즉, 임상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 중인 간호학생 대상으로 교육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로서, 자기효능 속성 중 학습가능성에 대해 그 효과를 실증하고 있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8].

2000년 이후 국내 간호연구에서 특이적 자기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개별분야 연구는 간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기관리의 주요 결정인자로서 뇌졸중환자[9], 당뇨환자[10], 신장이식 환자[11] 같은 특정한 간호대상자에 대한 특이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어 있으며,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팀효능감[12], 학업적 자기효능감[13], 간호효능감[14] 등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이적 자기효능감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행연구들을 중

합하여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호학문이 당면한 혹은 미래의 다양한 도전들은 간호사나 간호학생에게 매우 다양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과 변화 속에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간호행위 자아효능감 같은 특이적 효능감을 측정하고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되고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특이적 자기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 관련 국내 간호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출처, 연구설계, 측정도구 및 주요개념을 분석하여 연구경향을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피하고 확대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간호연구의 방향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간호사들이 연구한 간호사, 간호대학생, 간호대상자의 특이적 자기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간호연구 중에서 석, 박사 학위논문과 간호 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특이적 효능감 관련 간호연구를 분석하여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의 일반적 특성(출판연도, 논문유형, 연구설계, 자료수집방법, 윤리적 측면, 연구비 지원 및 연구대상자)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도구의 종류, 사용빈도와 측정결과를 파악한다.

셋째, 실험연구에서 연구 설계, 연구대상자, 간호중재 및 종속변수를 파악한다. 넷째, 질적 연구에서 연구 설계, 연구대상자, 자료수집, 자료 분석 방법과 타당도 검증방법을 파악한다.

II. 2장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특이적 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 관련 간호연구들을 통합하고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문헌고찰 연구이다.

2. 문헌선정기준

본 연구는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tion)의 체계적 고찰 핸드북[16]과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그룹이 제시한 체계적 고찰 보고지침[17] 문헌을 선정 기준과 배제기준에 따라 국내 전자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시행하였다.

1)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기준

본 연구 대상 논문은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특이적 자기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 관련 국내 간호연구들이다. 대상 논문의 선정기준은 특이적 자기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 관련 간호연구, 198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연구, 국내에서 발행된 한국한술지인용색인(Korean Citation Index, KCI) 등재된 간호 연구를 포함하였다.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2) 배제기준

자료 분석을 위한 연구의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술대회 자료집, 대한간호협회웹진(대한간호), 연구소에서 발행한 논문 등은 배제하였다.

3. 문헌검색 및 선정

1) 자료검색

첫째, 특이적 자기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 관련 국내 간호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검색은 주제어 검색에서 '간호' AND '효능감'을 기본으로 검색하였다. 둘째, 검색이 가능한 1985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8년까지 연구를 검색하였다. 셋째, 문헌검색범위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 DBpia (<http://www.dbpia.co.kr>), 한국학술정보(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와 구글 학술검색(<http://scholar.google.co.kr/>)에서 검색하였다. 또한 검색 데이터 베이스에서 추천하는 추천논문과 유사논문과 자료분석 과정에서 연관된 문헌을 추가 검색하였다.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이 중복 되었을 경우는 학술지 논문을 선택한다. 넷째, 서지반출 프로그램은 엔드노트((End-Note X7)를 이용하여 모든 문헌의 서지정보를 동일하게 관리하였다.

2) 자료수집과 선정

자료수집은 전남소재 M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면제(OOUIRB-20170223-SB-003-01)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검색은 다음과 같은 검색전략을 사용하여 충분히 훈련된 연구자 2명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각 연구자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된 문헌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 후 중복된 문헌들을 제거하였는데 문헌관리는 서지반출 프로그램인 엔드 노트를 이용하였다. 각자의 작업이 끝난 후 각 연구자의 최종 문헌 자료를 하나의 엔드 노트로 합한 다음 중복된 문헌들을 제거하고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문헌 선정기준에 부합된 연구인지를 확인하였다. 제목이나 초록만으로 선정기준에 부합된 연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본문을 참조하여 해당 문헌을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모든 문헌의 서지정보를 동일하게 관리하였으며 연구 문헌의 최종 선정은 연구자 2인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자료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 고찰에 포함된 연구는 총 75편으로,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RISS에서 224편, DBpia에서 255편, KISS에서 105편, KM base에서 10편, 박사학위 5 편, 석사학위 5 편의 논문 총 604 편을 검색하였다. 또한 추가 검색으로 대한간호학회지 및 8개 분과 학회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임상간호연구 검색과 데이터베이스 추천 논문과 자료 분석과정에서 7편을 추가로 검색하여 총 611편이었다. 먼저 서지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387편의 중복논문을 제외하였다. 224편의 논문들은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대상으로 한 논문 112편, 간호학 논문이지만 학술대회 논문 6편의 총 118편을 제외하고 106편 논문의 전문을 출력하여 검토하였다.

106편의 전문을 검토하여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석사학위논문 2편, 연구대상자가 요양보호사 교육생, 영유아, 초등학생, 응급구조사 등의 논문 31편을 제외하여 최종 75편을 문헌고찰을 위한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Fig. 1).

3) 논문의 질 평가

최종 선정된 논문은 Zangaro와 Soeken[18]의 논문 질 평가 척도(Study Quality Rating Scale)을 적용하였다. 이 척도는 연구목적, 표본, 연구가 수행된 시설의 종류, 자료 수집 방법, 응답율, 변수의 용어정의, 측정 도구에 대한 설명,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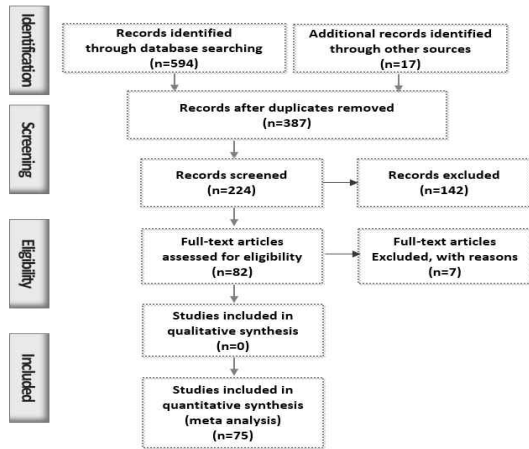


그림 1. 체계적 문헌고찰 흐름도
Figure. 1. Flow diagram for the reviewed studies

설명, 도구의 신뢰도, 전체적인 연구의 질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1-9문항은 ‘예’, ‘아니오’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10번 문항은 낮음, 보통, 높음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예’ 응답이 4번 이하이면 낮은 것으로, 5-7회 이면 보통으로, 8-9회 이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논문의 질 평가는 연구자 2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후, 일치하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간호학과 교수 1인과 함께 재평가함으로써 논문의 질을 최종 결정하였고, 질 평가 결과 분석에서 제외되어야 할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연구동향 분석틀

연구동향은 논문의 특성, 연구대상자, 연구의 주요 변수, 실험연구의 간호중재 및 연구도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논문의 일반적 특성은 Choe 등[19]의 분석기준을 기본 틀로 하여 전체 논문에서 논문유형, 연구 설계, 윤리적 측면, 연구비 지원에 대하여 연구대상자인 간호사와 간호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논문유형은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으로 구분하였다. 학위논문 중에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학술지 논문에 포함하였다. 연구 설계는 크게 양적 연구, 질적 연구와 혼합 연구로 구분하였다. 양적연구는 실험 연구와 비실험 연구로 나누고, 비실험 연구는 조사연구, 방법론적 연구, 문헌고찰, Q방법론적 연구, 개념분석으로 구분하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특이적 효능감을 간호,

교육, 기타 영역의 기준을 기본 틀로 사용된 특이적 효능감의 원저자를 중심으로 논문저자, 연구제목과 연구대상자 수를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사연구와 실험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연구는 특이적 효능감의 원저자를 중심으로 논문저자, 연구제목과 연구대상자 수를 분석하였다. 실험 연구는 Renzaho 등[20]의 분석기준을 기본 틀로 하여 간호중재 및 종속변수를 중심으로 논문저자, 연구대상자 수, 연구설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수는 전체 대상자와 실험군 대상자 수를 구분하였으며 중도 탈락자는 제외하고 최종 연구대상자 수로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분석항목인 논문의 일반적 특성(논문유형, 연구 설계, 윤리적 측면, 연구비 지원 유무, 연구대상자), 연구 도구, 실험 연구의 간호중재 및 종속변수에 따라 연구자 2명이 엑셀에 각각 코딩하여 두 코딩결과를 비교 확인하였다. 코딩된 자료는 SPSS 18 version를 이용하여 서술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체계적 고찰에 포함된 총 75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출판연도, 논문유형, 연구설계, 윤리적인 고려, 연구비 지원, 연구대상자 특성으로 구분하였다(Table 1).

출판연도는 1985년부터 시작된 연구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0년부터 연구가 검색되었으며 2000년부터 2010년, 2011년~2015년, 2016년~2018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절반이상이 2016년 이후 발표되었다.

논문유형은 학술지 논문은 66편(86.7%)이 가장 많았으며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은 각 5편씩이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학위논문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학술지 논문 65편 중 석사학위논문이 3편이 발표되어 전체 학위 논문은 13편이었고 그 중 3편만이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연구 설계는 양적 연구가 72편, 혼합 연구는 3편(2.3%)

이었다. 양적 연구 중에서 실험 연구는 23편이었으며, 비 실험 연구는 49편이었다. 비실험 연구에서는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방법론적 연구가 3편 있었으나, 문헌고찰, Q 방법론, 개념분석 연구와 질적 연구는 없었다.

윤리적인고려는 기관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를 받은 논문이 21편(28.0%), IRB 심의 없이 개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은 논문이 33편, 윤리적 고려를 보고하지 않은 논문이 54편이었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이 21편(28.0%)이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교외지원이 대부분이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교내 연구비를 지원 받아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간호 대학생이 51편(68.0%)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많았으며 문헌분석 및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대상 수 선정기준이 있는 논문이 44편(58.7%)으로 선정기준이 없는 논문보다 많았다 (Table 1).

2.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특이적 효능감 연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특이적 효능감 연구는 간호영역이 10편, 교육 영역이 9편, 기타 영역 5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간호영역에서 간호실무효능감을 주제로 한 연구가 4편이었으며 섬망환자간호, 신생아간호, 직무효능감, 근거기반간호실무효능감, 상황난제 효능감, 욕창간호 효능감 등이 있었다.

간호실무효능감 측정에 간호실무효능감 척도(NCSE =Nursing Clinical Self-efficacy Scale)와 간호효능감 (Nursing Self-efficacy) 척도가 각각 2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교육영역에서 교수효능감을 주제로한 연구가 9편이었으며 보건교사와 임상현장지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수효능감 측정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5편이었다[21].

기타영역에서 간호사들의 양육효능감, 범문화효능감, 집단 효능감, 정치효능감, 유방자가검진효능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Table 2).

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이적효능감 연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실험연구와 실험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비실험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연구가 13편으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viewed studies
 표1. 일반적인 특성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es n (%)	Nursing Student n (%)	Total n (%)	
Publication Year	2000~2010	3(12.5)	2(3.9)	5(6.6)	
	2011~2015	13(54.2)	13(25.5)	26(34.7)	
	2016~2018	8(33.3)	36(70.6)	44(58.7)	
Manuscript type	Doctoral dissertation	2(8.3)	3(5.9)	5(6.6)	
	Master's thesis	3(12.5)	2(3.9)	5(6.6)	
	Academic journal	19(79.1)	46(90.2)	65(86.7)	
Research Design	Experimental design	3(12.5)	20(39.2)	23(30.7)	
	Non-experimental design	Survey	17(70.8)	29(56.9)	46(61.3)
		Methodological research	3(12.5)	0(0.0)	3(4.0)
	Literature review	Literature review	0(0.0)	0(0.0)	0(0.0)
		Q-methodology	0(0.0)	0(0.0)	0(0.0)
		Concept analysis	0(0.0)	0(0.0)	0(0.0)
	Qualitative Research	0(0.0)	0(0.0)	0(0.0)	
Mixed Research	1(4.2)	2(3.9)	3(4.0)		
Ethical consideration	Institutional Board (IRB) Review	12(50.0)	9(17.6)	21(28.0)	
	Verbal or Written consent	12(50.0)	42(82.4)	54(72.0)	
	Not reported	0(0.0)	0(0.0)	0(0.0)	
Research Fund Supporting	Inside Grant	0(0.0)	14(27.5)	14(18.7)	
	Out Grant	6(25.0)	1(2.0)	7(9.3)	
	No	18(75.0)	36(70.6)	54(72.0)	
Criteria for selecting the number of Participants	Yes	9(37.5)	35(68.6)	44(58.7)	
	No	15(62.5)	16(31.4)	31(41.3)	
Total		24(100.0)	51(100.0)	75(100.0)	

로 가장 많았으면 진로결정효능감 연구도 6편이 있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에는 9편의 연구에서 Kim과 Park[22]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진로결정효능감 측정에는 5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CDMSES - SF: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가 사용되었다. 간호실무효능감, 심폐소생술 효능감, 인수인계효능감, 골다공증 효능감, 음주거절효능감, 식이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정치효능감, 다문화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Table 2. Specific efficacy of reviewed studies on nurses
 표2. 간호사 대상 특이적 효능감

Categories	Specific Efficacy	Instrument Author (Year)	Research Author(year)	Research Title	Number	
Nursing	Nursing Clinical Self-efficacy	Harvey & McMurray(1994) NCSE	Han & Choi(2011)	Effects of a Refresher Program for Inactive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ing Clinical Self-Efficacy	80	
			Ahn(2000)	A Model for Clinical Nurses' Self- efficacy and Work Performance	439	
			Park et al(2015)	The relationship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ore Competency of Hospital Nurses with Nursing Self Efficacy	250	
	Nursing Self Efficacy	Sherer & Adams(1983)	Kang et al(2014)	Effects of Nurses' Teamwork on Job Satisfaction at Hospital: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304	
						Self-Efficacy on Delirium
	Self efficacy on Neonatal pain intervention	Chiang Chen & Huang(2006)	Kim & Choi(2017)	Factors Affecting Nursing Interventions for Pain among Nurse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120	
	Job Efficacy	Song(2010)	Kim & Yang(2016)	The Effects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Training Program on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Efficacy of Home Visiting Nurses	23	
	Evidence-Based Practice Self-efficacy	Chang & Crowe(2011) SE-EBP	Oh et al(2016)	Mixed Method Research Investigating Evidence-Based Practice Self-efficacy, Course Needs, Barriers, and Facilitators: From the Academic Faculty and Clinical Nurse Preceptors	73	
	Korean version of self-efficacy for restorative care activities	Resnick & Simposi(2003) K-SERCA	Jung et al(2015)	Psychometric Test of Korean Version of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for Restorative Care Activities Scale among Nurses	187	
	Self-efficacy in Pressure Ulcer	Park et al(2013)	Park et al(2013)	The Effects of the Education about New Pressure Ulcer Classification and Incontinence-associated Dermatitis on Knowledge and Self-efficacy in Pressure Ulcer among Nurses	41	
Teaching	Teaching Efficacy		Suh(2013)	Relationships between Degree of Decision Making Participation and Health Teacher Efficacy	118	
			Yi(2008)	Kim(2012)	The effects of Job stress and Teacher efficiency Focused on School Health Teachers Job satisfaction	232
				Cho(2011)	Research on Factors Affecting Health Teacher Efficacy	251
			Park(2016)	Kim et al(2011)	The Effects of School Health Teachers'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230
				Yi & Kwon(2008)	Development of Teacher-Efficacy Scale for Health Education Teachers	364
			Hwang(2006)	Park(2016)	Development of Teaching Efficacy Scale for Clinical Nursing Instructor	317
			Gibson& Dembo(1984)	Kim(2016)	Teaching Efficacy on the Clinical Education in Nurses	263
			Schwarzer, Schmitz & Daytner (1999)	Lee(2015)	Teacher's Choosing Motivation, Teaching Efficacy, Philosophy,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in Health Teachers	136
Kim et al(2012)	Factors Related to Teachers' Self-efficacy in Korean Health Teachers	474				
Others	Parenting Efficacy	Lee(2004)	Lee & Kim(2018)	Effects of Nurse'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at Medium-sized Hospitals	203	
	Transcultural Self-efficacy	Oh et al(2016)	Oh et al(2016)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Transcultural Self-efficacy Scale for Nurses	242	
	Collective Efficacy	Riggs & Knight(1994)	Kang & Kim(2013)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Collective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239	
	Political Efficacy	Nam & Huh(2012)	Jun et al(2014)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age as Factors Influe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Hospital Nurses	192	
	Breast Self-Exam Efficacy	Champion(1993)	Kim et al(2003)	Factors Influencing on the Compliance of Breast Self-Examination of Nurses in a Local Area	258	

Table 3. Specific efficacy of reviewed non experimental studies on nursing students

Specific Efficacy	Instrument Author (Year)	Research Author(yr)	Research Title	No.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Self-Efficacy)		Lee & Cho(2018)	Convergence Influence of Self-Resilience, Critical Think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184	
			Shim(2018)	Influence of Academic Self-e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Lif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340
			Jung & Jeong (2018)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146
			Han(2018)	The relationships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Knowledge Achievement,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	196
		Kim & Park (2001)	Lee & Bong (2017)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190
			Yang(2017)	The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137
			Kim & Heo (2017)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125
			Moon & Lee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Burnout and Adjustment to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277
			Lee & Jung (2014)	The Study on Professor Trust and Academic Self-eficacy of Nursing Students	287
		Lee(2016)	Kum(2018)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Self-e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273
		Yoo(2006)	Ma & Lee (2017)	Factors Affecting Academic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95
		Ayres(2005)	Kim et al (2017)	Correlations among Learning Self-e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Perception of Importance and Transfer Intention for Core Basic Nursing Skill in Nursing Students at a Nursing University	80
		Sherer et al (1982)	Kim et al (2012)	Predictors of Drug Calcul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120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Efficacy)		Hyun & Kim (2018)	Moderating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307	
		Betz et al(1996) CDMSES-SF	Jung & Lee (2018)	Factors Affecting Career Attitude Maturity of Nursing Student	226
			Seo & Moon (2018)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Resilience, Self-eficacy, Self efficacy of Carer in Nursing Student	150
		Taylor & Betz (1983) CDMSES-SF	Shim(2017)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in Nursing Students	185
			Jung et al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543
		Solberg(1994)	Moon & Lee (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544
Nursing Clinical Self-eficacy	Harvey & McMurray(1994) NCSE	Oh & Kim (2018)	The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Self-Efficacy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149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Self-Efficacy	Park & Jun (2018)	Kim et al(2018)	Willingness to Perform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in Emergency Situation: Convergence factor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176	
Handoff Self-Efficacy	Lee et al (2016) PSH	Shin & Hwang (2018)	Factors affecting handoff self-e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233	
Osteoporosis Self-Efficacy	Kim, Horan & Gender(1991)	Jeong(2017)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Predictive Factors of Osteoporosis Health Behavior	207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Oei et al (2005) DRESEQ-R	Ji and Lee(2016)	Factors Affecting Problem Drinking in Male Nursing Students	126	
Dietary Self-eficacy	Choi(2012)	Park et al (2016)	Body Composition and Dietary Self-eficacy of Nursing Students	197	
Social Self-eficacy	Cho & Lee(2001)	Jeon(2016)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ocial Self-eficacy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170	
Political Efficacy	Nam & Huh (2012)	Jun et al(2015)	Influencing Factors of SNS Usage,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Efficacy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Nursing Students of University	397	
Multicultural efficacy	Lim & Oh (2010)	Kim & Lim (2014)	Relationships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attitude and multicultural 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258	
Self-Regulatory Efficacy	Ha & Kim(2013)	Ha & Kim (2013)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ory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mage and Perception of the Nurse's Image of Nursing Students	768	

CDMSES-SF=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 NCSE=Nursing Clinical Self-eficacy Scale; PSH=Perceived Self-eficacy of Hand-off reporting; DRESEQ-R=Drinking refusal self-eficacy questionnaire-revised; No: Participant number

Table 4. Summary of experimental studies

표4. 실험연구 분석

Specific Efficacy	Instrument Author(yr)	Research Author(year)	Intervention	simulation	Participants Number	Research Design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Self-Efficacy)	Kim & Park(2001)	Jung & Jeong (2018)	E-book-based Flipped Learning Education		54	OPPD
		Ki et al(2018)	Smart Learning		181(86)	NCGPPD
		Kim & Heo (2017)	Simulated Education-based Hypoglycemia Scenario Using a High-fidelity Simulator	○	101(52)	NCGPPD
	Ayres (2005)	Kim et al (2015)	learning approach based on an elderly with-cognition-disorder scenario	○	67(32)	NCGPPD
		Park & Kim (2018)*	Simulation-based Education Using a Standardized Patients for Schizophrenia Nursing care	○	61	OPPD
Nursing Clinical Self-efficacy	Harvey & McMurray(1994) NCSE	Kim & Kim (2014)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using Simulated Patients	○	119	OPPD
		Kim(2001)	Kim(2017)	Self-directed Practice through Writing Self-Reflective Journal on Basic Nursing		113(57)
	Evelyn(2015)	Kwak(2017)	simulation-based integrated nursing practice	○	102(52)	NCGPPD
	Visual Analogue Scale	Nam et al (2014)	online nursing education contents		47(21)	NCGPPD
Communication Self-Efficacy	Ayres (2005)	Lee et al(2015)	Integrated simulation Practice program (Delivery-Operation-Newborn care)	○	24	OPPD
		Noh & Lee (2018)	Stepwise Communication Education Program using SBAR among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Scenarios and Nursing Case-based Role Playing		27	OPPD
	Hong (2015)	Jeong & Seo (2017)	Convergenc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83(41)	NCGPPD
	Hong (2001)	Park & Kim (2018)*	Simulation-based Education Using a Standardized Patients for Schizophrenia Nursing care	○	61	OPPD
	Lee(2015)	Lee(2015)	Therapeutic Communication Learning Scenario Using Stanrdized-Patient	○	20(10)	NCGPPD (Mixed Design)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Self-Efficacy	Schlessel et a l1995)	Yoon(2018)	AHA Basic Life Support(BLS) Education o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28	OPPD
		Park(2006)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56(28)	NCGPPD
	Cheon (2011)	Lee(2018)	Simulation-based Education Program on Emergency Airway Management	○	30	OPPD (Mixed Design)
	Roh et al(2012)	Kim(2018)	Simulation-based Advanced Life Support Training for Nursing Students	○	60(30)	NCGPPD
Team Efficacy	Marshall (2003)	Hong(2018)	Simulation on Nursing	○	29	OPPD
		Song & Lim(2018)	Adult Nursing Simulation Educatio	○	118	OPPD
Counseling Challenges Self-Efficacy	Lent(2003)	Kang(2013)	Counseling Challenges Coping Training using Role play		56(28)	NCGPPD
Career Search Efficacy	Solberg (1994)	Moon & Kim (2012)	Career Search Programs		50(22)	NCGPPD

EG =Experimental Group; NCGPPD= nonequivalent

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rics; OPPD=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NCSE=Nursing Clinical Self-efficacy Scale;

* Multiple choice

분석되었다(Table 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22편의 실험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설계는 12편(54.5%)이 비동등대조군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NCGPPD)였으며, 단일군사전사후설계(One -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OPPD)가 10편(45.52%)이었다. 실험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연구가 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실무효능감, 의사소

통효능감, 심폐소생술 효능감, 팀효능감 순이었다. 실험중재는 시뮬레이션이 1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폰 활용 중재 2편, 역할극 중재 2편, 전자책(E - book), 온라인(online), 앱 활용 등이 있었다(Table 4).

IV. 논의

본 연구는 국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특이적 효능감 관련 간호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간호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특이적 효능감 관련 간호연구는 1996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간호사 혹은 간호학생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과학적 지식체 및 기술에서 효능감이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효능감 외에 각 분야 별 특이적 효능감을 평가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증가[23]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2007~2009년에 간호역량, 다양성, 적응, 스트레스 등이 새롭게 떠오르는 간호 주제라고 보고한 것[21]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의 특이적 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논문유형은 학술지 논문이 대부분(76.7%)이었는데 이는 Kim[23]이 결혼이주여성 대상 중재연구를 분석한 결과 학술지 논문 42.2%, 학위논문 57.8%와 비교했을 때와 차이가 있는 반면 그 후 Choi & Kim[22]과는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될 경우 학술지 논문을 선정하였는데, Kim[23]의 연구에서는 중복될 경우 학위논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술지와 학위논문이 중복되었을 때 분류기준이 연구자에 따라 다른 점은 향후 간호학에서 논의되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총 25편의 학위논문 중 5편(20.0%)이 학술지에 게재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학위논문은 국외 연구자가 문헌검색을 할 경우 쉽게 구할 수 없는 회색문헌이므로,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설계는 양적 연구가 대부분 이었는데, 이는 Choe 등[19]이 대한간호학회지 및 회원학회지 6,890편을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가 83.6%를 차지하였다는 결과보다 높았다. Kim[23]이 피인용 지수(Impact factor)가 높은 학술지 10개 분석 결과를 비실험 연구 42.9%, 실험 연구 13.4%, 질적 연구 34.2%라고 보고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향후 다양한 질적 연구가 확대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특이적 효능감과 관련된 질적 연구도 필요하겠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IRB 심의를 받은 논문은 55.8%

으로 Choe 등[19]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연구 중 기관의 동의를 얻은 연구가 1.5%라고 보고한 것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00년 이후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 연구윤리 워크숍 등이 시행되어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19], 이 후 김과 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22], 대한간호학회지를 비롯하여 분과별 학회지 게재시 IRB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는 28.0%이었는데 이는 특이적 효능감 관련 실험연구를 고찰한 Beach et al.[24]의 연구에서 연구비 지원이 35.9%이었다는 결과보다 낮았고, 특히 교외 연구비 지원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교내 연구비 지원뿐 아니라 교외 연구비가 더욱 확대되어 질적인 연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구대상자 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있는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절반이상에서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구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표본크기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대한간호학회지를 비롯하여 분과별 학회지 게재 시 연구대상자 수에 대한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이적 효능감 연구에서 주제별로 간호, 교육, 기타 등으로 분석되었다. 간호 영역에서는 각 분야별로 매우 다양하고 특화된 효능감 관련 도구들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중에는 간호실무효능감, 간호효능감 및 각 대상자의 질환에 따른 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특이적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10개로 다양하였는데 Park[25]이 개발한 도구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Son, Je, Yi[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Park[25]의 도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된 도구임에도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많이 사용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상자를 전문가용과 간호 대학생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Han, Cho, Chung[27]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특이적 효능감 측정도구를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여 총 27문항 5점 척도로 개발하였고, Chae, Leel[28]는 간호사들의 특이적 효능감 측정도구를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여 총 33문항 7점 척도로 개발하였다.

Shen[29]은 특이적 효능감의 이론적 모델과 특이적 효능감 사정도구들의 연계 및 각 도구들의 신뢰도와 타당도까지 포함하여 연차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려한 도구개발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특이적 효능감 이론적 모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주제 중 교육관련 특이적 효능감 도구들도 다양하게 시도되었는데 실무영역이 10편인데 반해 9편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었다[30].

기타 분야로 자기효능감은 한국 간호학 연구주제를 분석한 Lee, Jeong, Kim, & Yom[21]의 연구에서 상위 1.0%에 해당되는 연구주제라고 보고되었으며, 범문화 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범문화효능감은 특이적 효능감의 인지적 선행요인으로 간주되며 Kim [31]이 번역한 도구가 많이 사용되었다. 범문화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 보다 높았으나, 자기효능감은 간호사가 간호대학생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한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이적 효능감 연구에서 주제별로 학습관련 자기효능감이 13편으로 가장 비중있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진로관련 효능감이 6편 있었고 기타 간호실무 및 학생신분관련 등으로 분석되었다.

실험연구의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와 단일군 사전사후설계가 간호사 및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향후 앞으로 무작위 임상시험설계(Randomized Clinical Trials, RCT)를 적용하여 인과관계의 추론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실험중재는 교육과 정보제공 등 인지적 측면의 중재가 대부분이었으나 향후 교육대상이나 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 교육방법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외국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새로운 교육방법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32]. 22편 실험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특이적 효능감을 측정하였으며, Beach et al.[24]은 건강관리 제공자들의 특이적 효능감 증진이 대상자의 만족에 근거가 있었으나 애착에 대한 근거가 약했으며,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근거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향후 실험연구의 종속변수를 간호사, 간호학생 및 대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의 질까지 확대하여 측정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설계 중 질적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는데, 이는 질적연구의 특성 상 연구대상자들이 지각과 판단의 모든 복잡성을 가진 인간에 의해 경험되는 현상을 연구하며, 경험의 개인적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description)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실제에서 그들을 알고 도울 수 있다는 관점임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간호사 및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심화 확대할 뿐 아니라,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효능감은 간호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속성으로 여겨져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특이적 효능감 관련 간호연구는 2014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험연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사실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반복된 실험연구와 순수실험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연구 설계, 윤리적인 측면, 연구도구, 자료수집, 자료 분석 등 특이적 효능감관련 간호연구의 포괄적인 영역을 분석하여 미래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험연구와 질적 연구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연구의 반복연구와 순수 실험연구를 통한 인과성 규명이 필요하다. 둘째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대상을 특이적 효능감 간호를 제공받는 대상자와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간호 실무에서 특이적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간호대학에서 교과 및 비교과과정을 운영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1986.
- [2] A. Bandura,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 Social foundations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1997.
- [3] M. O. Goo, Y. H. Yang, E. N. Lee, S. J. Park, Y. I. Park, S. I. Seo, S. J. Kim, I. J. Kim, E. O. Choi, D. S. Lee, I. S. Lee, and E. O. Lee, “A Concept analysis of self efficacy”. *The Seoul Journal of Nursing*, 11(1), pp. 106–117, 1997.
- [4] M. Snadra, “The Effect of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on the self - efficacy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8(6), pp. 282–285, 1999.
- [5] Y. Babenko-Mould, “Effects of computer based clinical conferencing on nursing students’ self - efficac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3(4), pp. 149–155, 2004.
- [6] A. Bandura, “Self - 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pp. 191–215, 1977.
- [7] D. Goldenberg, Mary-Anne. Andrusyszyn, and C. Iwasiw, “The Effect of classroom simulation on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related to health teach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4(7), pp. 310–314. 2005.
- [8] J. W. Park, M. S. Yoo, E. J. Seo, and H. R. Park, “The Longitudinal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Core Competency -Focusing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operative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4), pp. 2269–2282, 2015.
- [9] S. H. Cho & K. S. Yun, “Influence of uncertainty, physiologic risk factors, self-efficacy on self-management in stroke patients”. *Korean Society of Muscle and Joint Health*, 23(2), pp. 114–124, 2016.
- [10] N. Y. Sohn & J. H. Yang, “Factors influencing self-care behaviors related to insulin therapy in elders with diabetes mellitu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20(1), pp. 27–36, 2013. <http://dx.doi.org/10.7739/jkafn.2013>.
- [11] Y. H. Hwang & M. A. Choe, “A study on the compliance of kidney transplantation recipient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4(2), pp. 15–25, 2011.
- [12] J. M. Hong, “The effects of simulation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communication skills, and team 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8(3), pp. 397–405, 2018.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3.81>
- [13] S. H. Han, “The relationships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knowledge achievement,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8(5), pp. 661–671, 2018.
- [14] H. H. Park, Y. S. Kim, and I. O. Oh, “The Relationship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ore competency of hospital nurses with nursing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1), pp. 531–544, 2015.
- [15] E. Kennedy, & R. M. Misener,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Assessment of the Nursing Competence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4(10), pp. 149–155, 2015.
- [16] JPT. Higgins & S. Green,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version 5.1.0* [Internet]. London, UK: The Cochrane Collaboration; 2011 [cited 2016 November 29]. Available from: <https://handbook.cochrane.org>.
- [17] D. Moher, A. Liberati, J. Tetzlaff, and D. G. Altman,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British Medical Journal*. 339:b2535. 2009. <https://doi.org/10.1136/bmj.b2535>
- [18] G. A. Zangaro & K. L. Soeken, “A meta-analysis of studies of nurses’ job satisfactio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0(4), pp. 445–458, 2007.
- [19] M. A. Choe, N. C. Kim, K. M. Kim, S. J. Kim, K. S. Park, Y. S. Byeon, et al. “Trends in nursing research in Korea: research trends for studies published from the inaugural issue to 2010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nd the journals published by member societies under Kore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5), pp. 484–494, 2014. <https://doi.org/10.4040/jkan.2014.44.5.484>
- [20] T. I. Kim, J. Y. Kim, S. M. Choi, and G. H. Jung, “Analysis of intervention studie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4(2), pp. 172–184, 2013. <https://doi.org/10.12799/jkachn.2013.24.2.172>
- [21] S. K. Lee, S. Jeong, H. G. Kim, and Y. H. Yom,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research topics in Korean nursing sc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5), pp. 623–632. 2011. <https://doi.org/10.4040/jkan.2011.41.5.623>
- [22] M. A. Kim & S. E. Choi, “A Literature Review of the Studies on Cultural Competency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 29(4), pp. 450–466, 2018. <https://doi.org/10.12799/jkachn.2018.29.4.450>

- [23] G. S. Kim, Trends and perspectives in nursing research in Korea. Kore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40th Anniversary Conference; 2010 Oct 22; Seoul: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318, 2010.
- [24] M. C. Beach, E. G. Price, T. L. Gary, K. A. Robinson, A. Gozu, A. Palacio, et al. "Competency: A systematic review of health care provider educational interventions". *Medical Care*, 43(4), pp.356-373, 2005. <https://doi.org/10.1097/01.mlr.0000156861.58905.96>
- [25] J. S. Park, "Study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 [master's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2011.
- [26] H. M. Son, M. J. Je, and B. J. Yi, "Integrative review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Studies*, 9(4), pp. 25-47, 2014.
- [27] S. Y. Han & C. H. Cho,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5), pp. 684-693, 2015. <https://doi.org/10.4040/jkan.2015.45.5.684>
- [28] D. H. Chae & C. Y. Lee, "Development of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clinical nurses". *Asian Nursing Research*, 8(4), pp. 305-312, 2014. <https://doi.org/10.1016/j.anr.2014.06.004>
- [29] Z. Shen, "Cultural competence models and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 instruments in Nursing".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6(3), pp. 308-321, 2014. <https://doi.org/10.1177/1043659614524790>
- [30] M. J. Choi, "Differences of creative leadership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work prefer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5(3), pp.1-8, August 31, 2019.
- [31] S. H. Kim, "Transcultural self-efficacy and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1), pp. 102-113, 2013. <https://doi.org/10.4040/jkan.2013.43.1.102>
- [32] M. J. Sin, H. H. Pyeon, H. H. Kim, and J. H. Mo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body image,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SNS use tim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5(1), pp.147-152, February, 2019.

※ 본 연구는 2019년도 목포가톨릭대학교 교내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제2019-5호)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Mokpo Catholic University Annual Academic Fund in 2019. (No.: 2019-5)